

Market Intelligence

1.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

[참고자료] 주요 경제지표

2. 주간 이슈 4

-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동향과 시사점

주요 동향

◇ 미국, 10월 FOMC 회의를 통해 양적완화 종료 결정(10.29일)

- 금년 1월 자산매입 규모를 100억달러 축소(U\$850억/월 → U\$750억/월)한 후 10개월 만에 종료
 - 경제지표의 완만한 회복세 및 양호한 노동시장 개선 등이 반영됨
- 만기도래 자산에 대한 재투자는 지속하고, 기준금리도 상당기간 제로금리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결정

◇ 일본은행, 추가 양적완화 결정(10.31일)

- 자산 매입규모를 기존의 연간 60조~70조엔에서 80조엔까지 확대
 - 추가 양적완화는 최근 경기부진과 물가목표 달성 가능성 감소 우려 확대 및 내년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
- 예상치 못한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결정으로 주가와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장기금리도 하락
 - ※ 주가 +4.83%, 엔/달러환율 +0.92%, 장기금리 -0.01%p

◇ 신흥국, 10월 해외자본 순유입이 급감하며, 글로벌 자금의 신흥시장 이탈 여부에 관심 증가

- 10월중 아시아,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포트폴리오 투자로 순유입된 해외자금 규모는 10억달러로 전월(100억달러) 대비 크게 감소
 -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미국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한 것으로 종류별로는 주식투자 순유출(90억달러), 채권투자 순유입(100억달러)
- FTSE 신흥시장 주가지수는 9월초 대비 7.9% 하락
 - ※ FTSE 신흥시장 지수 : 521('14.7) → 526('14.8) → 545('14.9) → 505('14.10)

주요 동향

◇ 중국, 주요 대형은행들 3분기 부실대출 증가

- 공상은행과 교통은행의 3분기 부실채권액은 각각 1,057억위안, 388억위안으로 전분기대비 9.3%, 5.4% 증가

※ 부실대출 비율(% , 2분기→3분기) : 공상은행(0.99→1.06), 교통은행(1.13→1.17)

- 공상은행과 교통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(3분기 기준)은 작년말 대비 각각 23%, 19% 증가
- 두 기관의 3분기 순이익 증가율(전년동기대비)은 각각 7.7%, 6.3%로 작년의 10.1%, 6.8% 대비 다소 둔화

◇ 두바이, 2008년 버블붕괴 이후 경제부활 신호

- 부동산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금년 경제성장률도 작년(4.6%)대비 다소 개선된 5.0%를 기록할 전망

※ 아파트 가격지수 : 207.0('13.3Q) → 179.3('13.4Q) → 251.7('14.1Q) → 269.5('14.2Q)

- 특히, 2020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철도, 건설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들이 추진 중으로 향후 안정적 경제회복 기대

◇ 한국, 10월 수출 대미 수출호조로 사상최고치 기록

- 10월 수출, 전년동기대비 2.5% 증가한 518억달러, 무역수지 75억달러 흑자 기록
- 지역별 증가율 : 미국(25%), 중국(3.7%), 일본(-1.4%)
- 품목별 증가율 : 선박 35.1%, 반도체 12.2%, 철강 7.7%, 석유화학 6.2%

참고자료

주요 경제지표

① 외환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10. 24	'14. 10. 31	전주비
₩/US\$	1,055.4	1,057.5	1,068.5	11.0
₩/100¥	1,002.3	979.7	963.1	△16.6
CNY/US\$	6.0618	6.1180	6.1135	△0.0045
¥/US\$	105.30	107.94	110.95	3.01
US\$/€	1.3736	1.2654	1.2564	△0.0090

② 채권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10. 24	'14. 10. 31	전주비
한국 국고채(3년)	2.86	2.21	2.14	△0.07
미국 국채(10년)	3.03	2.27	2.34	0.07

③ 주식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10. 24	'14. 10. 31	전주비
한국 KOSPI	2,011.34	1,925.69	1,964.43	38.74
미국 DJIA	16,576.66	16,805.41	17,390.52	585.11

④ 해운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10. 24	'14. 10. 31	전주비
BDI 지수*	2,247	1,192	1,428	236
HRCI 지수**	497.5	478.6	533.8	55.2

*Baltic Dry Index: 벌크선 운임지수

**Howe Robinson Container Index: 컨테이너선 용선지수

⑤ 유가

(US\$/배럴)

유 종	'13년말	'14. 10. 24	'14. 10. 31	전주비
WTI유 현물	98.99	81.35	80.71	△0.64
Brent유 현물	108.34	86.09	85.13	△0.96
두바이유 현물	103.96	84.63	84.27	△0.36

- ◆ 2009년부터 중국이 추진 중인 위안화 국제화 추진 배경 및 경과, 위안화 국제화 수준에 대한 평가, 우리나라의 위안화 활용도 등을 살펴보고자 함.

1. 추진 배경 및 경과

- (배경) 외환보유액 유지비용 및 외화거래비용 절감,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제고, 화폐발행이익 확보 등을 위해 위안화 국제화 추진
 -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(약 4조 달러)을 보유하고 있어 화폐가치변동에 따른 평가손실, 외화 유입에 따라 증가한 유동성 회수를 위한 통화안정채권 발행 비용 등 유지비용이 막대
 - * 국제금융센터, 중국의 외환보유액 유지비용 중 환차손 등을 제외한 이자 손실만 연간 745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
 - 중국은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시장에서 실물 경제적 위상에 버금가는 영향력 확보 추구
 - * 2013년 중국의 GDP(9.5조 달러)와 교역규모(4.2조 달러)는 각각 세계 2위, 1위
- (경과) 2009년 3월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공식 발표한 이후 점진적 규제 완화, 금융인프라 구축 등을 실시
 - 위안화결제 무역거래를 시범 시행(2009.7월)한 이후 단계적으로 개방 범위를 확대
 - 2010년에는 외국기업의 위안화 결제계좌 개설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결제범위도 확대
 - 직거래 통화 확대, 위안화 청산체계 구축, 통화스왑협정 체결 대상국 및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 <참고자료 1~3 참조>
 - 다만, 자본 유출입에 따른 위험 통제를 위해 자국 금융시장 개방 보다는 역외 위안화 시장 육성을 우선 추진

2. 위안화 국제화의 성과 및 전망

- 국제결제통화로서의 위안화 위상은 급속히 강화되고 있으며, 중국의 경제성장 등에 힘입어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
 - 전세계 국경간 지급결제(cross-border settlement, 무역과 자본거래 포괄)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0.3%('12.1)에서 1.5%('14.8)로 상승함에 따라 위안화가 세계 7위 결제통화로 대두
 - 최근 위안화는 무역금융 부문에서는 유로화를, 대 중국(홍콩 포함) 거래*에서는 홍콩 달러를 제치고 제2위 결제 통화로 부상
 - * 중남미, 중동의 대 중국 거래에서는 위안화 활용 비중이 50%를 상회
 - 미 달러화와의 격차 및 위안화 국제결제에서 홍콩의 비중이 매우 큰 점은 한계
 - * 홍콩은 위안화 국제 결제 중 73% 가량을 점유
 -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무역규모 확대, 주요국과의 위안화 청산 체제 구축 등 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하면, 결제통화로서 위안화 비중은 향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
 - * Standard Chartered의 130여개 업체 앞 설문 조사에 따르면, 향후 6개월 이내 역외 위안화 시장 이용을 현수준 유지 또는 증가시키겠다는 응답이 꾸준히 증가(79%['13.3] → 88%['13.7] → 92%['13.10] → 94%['14.5])

주요 통화별 결제통화 비중

통화	국경간 지급결제(%)				무역금융(%)			
	'12.1	순위	'14.8	순위	'12.1	순위	'13.10	순위
미 달러화	29.7	2	43.8	1	85.0	1	81.1	1
유로화	44.0	1	29.1	2	7.9	2	6.6	3
파운드화	9.0	3	8.4	3	0.4	7	0.3	8
엔화	2.5	4	2.5	4	1.9	3	1.4	4
캐나다 달러화	1.8	6	1.9	5	-	-	-	-
호주 달러화	2.1	5	1.6	6	0.2	9	-	-
위안화	0.3	20	1.5	7	1.9	4	8.7	2

* 무역금융의 경우, 10위 통화까지만 통계 제공.

자료: SWIFT, SWIFT RMB Tracker.

- 역외 위안화표시 예금액 및 채권 잔액 상승세, 외환보유액 편입국 증가 등을 감안하면 위안화는 투자·보유 측면에서도 점차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
 - 역외 위안화 예금액은 약 1.5조 위안('14.5월말 현재)으로, 홍콩, 대만, 싱가포르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고 런던 등 다른 지역의 예금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
 - 홍콩의 위안화 예금액은 2010년 이후 급증하였으며, 대만의 경우에도 2013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
 - * 위안화 예금액(조 위안): (홍콩) 0.1 ('10.1월) → 0.9('14.5월)
(대만) 0.04('13.2월) → 0.2('13.12월) → 0.3('14.6월)
 - 역외 위안화표시 채권 잔액(CD 포함)은 약 7,500억 위안('14.6월말 현재)인데, 홍콩의 딴섬본드 잔액이 약 98%를 차지
 - 2014년 상반기 딴섬본드 발행 규모는 3,660억 위안으로 2013년 연간 발행액(3,710억 위안)에 육박했으며, 대만의 포모사본드*, 싱가포르의 라이온시티본드** 시장도 점차 활성화
 - * 2013년 3월 이후 금년 6월말까지 18개 기관이 141억 위안의 채권 발행
 - ** 2014년 4월말 현재 채권 발행 규모는 75억 위안 수준
 - 위안화를 외환준비통화로 편입시키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IMF는 특별인출권(SDR) 구성통화*로 위안화 편입을 검토하는 등 위안화 보유 수요도 확대
 - * 현재, 미국 달러, 일본 엔, 영국 파운드, 유로화 등 4개 통화로 구성
 - 러시아, 베네수엘라, 브라질, 인도, 몽골, 이란, 나이지리아, 케냐 외에 최근 영국이 위안화를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였으며, ECB도 위안화 편입 여부를 검토중
 - * 영국은 지난 10월 14일, 3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표시 채권 발행에 성공하고, 조달한 자금은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할 것이라고 발표
 - 거래편의를 위한 위안화 예금수요 증가 등으로 향후 투자·보유 목적의 위안화 시장도 확대 예상

3. 우리나라의 위안화 활용 현황과 시사점

□ (현황) 대금결제, 예금 및 채권보유 등의 측면에서 위안화 활용 금액은 증가추세이나 비중은 여전히 크지 않은 상황

○ 대금결제시 위안화 사용액은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수출 1.6%, 수입 0.7%에 불과한 반면, 달러화 비중은 95% 수준

* 우리나라의 위안화 활용도 저조 원인: 1) 국내 기업이 달러 활용에 익숙, 2) 위안화 포지션에 대한 환헤지 어려움, 3) 위안화 여유자금 투자처가 제한적

○ 2014년 9월말 국내 위안화 예금잔액은 203.5억 달러(약 1,257억 위안)를 기록하여 외화예금잔액의 32%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

- 국내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도 개시

* 우리은행('14.10.10, 2억 위안, 2년 만기), ICBC Asia('14.10.14, 1.8억 위안, 2년 만기)이 국내에서 위안화표시 채권 발행에 성공

대중 교역시 결제통화별 사용 비중

(%)

구분		2011	2012	2013
수출	미 달러화	96.9	96.7	95.3
	위안화	0.6	1.0	1.6
수입	미 달러화	94.1	94.8	94.9
	위안화	0.2	0.3	0.7

자료: 한국은행.

통화별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 추이

(기말기준, 억 달러)

통화	2011	2012	2013	'14.9월
미 달러화	245.0	296.8	359.0	273.2
위안화	0.8	1.7	66.7	203.5
유로화	23.1	34.0	19.5	23.6
엔화	22.2	19.5	26.0	25.3
기타	8.2	8.3	13.1	12.2
계	299.3	360.3	424.3	636.8

자료: 한국은행.

□ (시사점) 위안화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여, 중국 경제와의 밀접한 관계, 역외 위안화금융 취급 관련 기구축된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를 구축할 필요

○ 우리나라는 싱가포르, 영국, 미국, 대만, 프랑스, 호주, 독일에 이어 세계 8위 수준의 위안화 결제규모를 기록(SWIFT, 2014. 6월말)

<참고자료 4 참조>

- 통화스왑 체결, 위안화직거래 추진, 위안화청산은행 지정, 위안화 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(RQFII)* 자격 부여 등으로 **역외 금융시장으로서의 상당한 인프라를 확보**
 - * 최근 양국 당국이 국내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은행에게도 RQFII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, 국내 은행의 중국 채권, 주식투자가 허용되어 위안화 여유자금 운영 여건이 개선될 전망 <참고자료 5 참조>
- 또한, 우리나라는 **대중 상품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*하고 있어 위안화 유동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**
 - * 흑자규모(억 달러): 453('10) → 478('11) → 535('12) → 628('13) → 404('14.9월말)
- 역외 위안화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위안화 거래·투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, 무역금융 등의 분야에서 위안화 취급 확대 등 **금융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 전개 요망**
- 다만,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 구축시 **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,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및 환율 자율화시 위안화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전이 가능성 등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**

확 인 자	팀 장	김 영 석
작 성 자	책임조사역	임 영 석

<참고자료 1>

위안화 직거래 거래 대상 통화 현황

□ 2014년 10월말 현재, 위안화와 직거래가 가능한 통화는 총 9개

통 화	거래 개시시점
미국 달러	
말레이시아 링기트	2010-08-19
러시아 루블	2010-11-25
일본 엔	2012-06-01
호주 달러	2013-04-10
뉴질랜드 달러	2014-03-19
영국 파운드	2014-06-19
유로	2014-09-30
싱가포르 달러	2014-10-27

자료: CFETS(China Foreign Exchange Trade System).

○ 대만, 우리나라 등과는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 기합의

<참고자료 2>

역외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 현황

□ 2014년 10월말 현재 중국은 9개 국가에 청산결제은행을 지정

지정연도	국가(지역)명	지정은행
2003	홍 콩	중국은행(BoC)
2004	마 카 오	중국은행(BoC)
2012	대 만	중국은행(BoC)
2013	싱 가 포 르	공상은행(ICBC)
2014	영 국	건설은행(CCB)
	독 일	중국은행(BoC)
	한 국	교통은행(BoCom)
	프 랑 스	중국은행(BoC)
	룩 셈 부 르 크	공상은행(ICBC)

자료: 인민은행, 언론 보도 종합.

중국의 통화스왑협정 체결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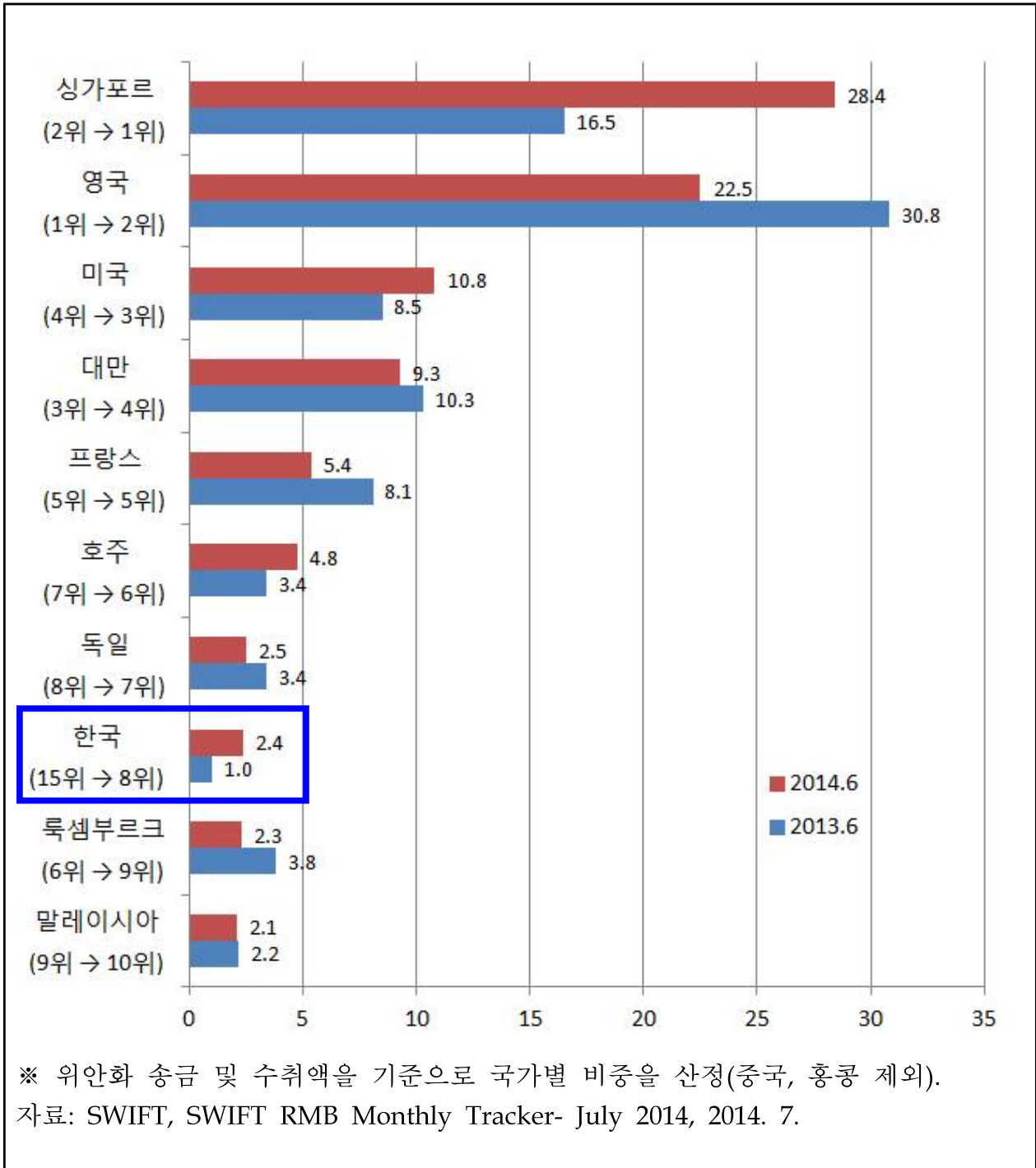
□ 총 26개국 앞 2.9조 위안에 육박하는 규모의 통화스왑협정을 체결

순번	국가	체결시점	규모(억 위안)
1	한 국	2008.12	3,600
2	홍 콩	2009.01	4,000
3	말 레 이 시 아	2009.02	1,800
4	벨 라 루 스	2009.03	200
5	인 도 네 시 아	2009.03	1,000
6	아 이 슬 란 드	2010.06	35
7	싱 가 포 르	2010.07	3,000
8	뉴 질 랜 드	2011.04	250
9	우즈베키스탄	2011.04	7
10	카자흐스탄	2011.06	70
11	태 국	2011.12	700
12	파 키 스 탄	2011.12	100
13	아랍에미리트	2012.01	350
14	터 키	2012.02	100
15	호 주	2012.03	2,000
16	우 크 라 이 나	2012.06	150
17	브 라 질	2013.03	1,900
18	영 국	2013.06	2,000
19	형 가 리	2013.09	100
20	알 바 니 아	2013.09	20
21	E U	2013.10	3,500
22	아 르 헨 티 나	2014.07	700
23	스 위 스	2014.07	1,500
24	몽 골	2014.08	150
25	스 리 랑 카	2014.09	100
26	러 시 아	2014.10	1,500
총 액			28,832

자료: 중국인민은행.

<참고자료 4>

세계 10대 역외 위안화 거래국 현황



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(RQFII) 제도 개요

- 해외금융기관이 자체 조달한 위안화로 중국 본토의 주식, 채권, 파생상품 등 각종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('11.12월 도입)

* Renminb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

- 증권감독위원회(CSRC)에서 결정한 국가별 한도 내에서 외환관리국(SAFE)이 기관별 한도를 부여
 - 2014년 7월 우리나라에 800억 위안 한도를 추가 부여하여, 10월말 현재 6개국에 총 6,600억 위안을 부여

<국가별 RQFII 한도 부여 현황>

국가명	한도(억 위안)	국가명	한도(억 위안)
홍콩	2,700	프랑스	800
대만	1,000	한국	800
영국	800	싱가포르	500

- 해외적격기관투자자(QFII)* 제도에서 적용되는 환전, 자산분배에 대한 규제가 없어, 환전절차 없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

*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

- QFII 하에서 외국인투자자는 중국 내에서 외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자본시장에 투자해야 하며, 투자대상도 주식 비중이 50%를 상회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